

광주 곳곳 '도로-맨홀 간 단차'...시민 불편·사고위험

뚜껑 주변 갈라짐·함몰 등으로 차량 피해 속출 차체 덜컹거림·옆차선 침범 등 아찔한 상황도

“맨홀 옆 도로가 파인 곳을 지난 때마다 차량이 덜컹거리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인데, 정차 보수는 언제쯤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18일 오후 2시께 광주 동구 계림동 인근 한 도로. 도로 위 곳곳의 맨홀 주변은 갈라지거나 파여 땅이 꺼진 듯한 상태였다.

이 탓에 맨홀과 주변 도로 간 '단차'가 형성되면서 이곳을 왕래하는 차량들은 바퀴가 걸리기 일쑤였다.

심지어 바퀴가 걸린 뒤에 차체 전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잦아 차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실제 기자가 취재 도중 한 차량이 차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곳을 자주 통행한다는 회사원 김모(36)씨는 “매일같이 차체 흔들림을 느낀다”며 “도로만 메꾸면 되는 문제 같은데, 보수는 언제쯤 해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북구 중흥동 한 이면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맨홀 주변 도로 곳곳은 깨지고 또 파여 있었지만,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리가 뒷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맨홀과 주변 도로 간 '단차'로 인한 불편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광주 각 자치구에 접수된 '도로-맨홀 간 단차'로 인한 민원 건수는 ▲2021년 307건 ▲2022년 560건 ▲2023



광주 곳곳에서 도로와 맨홀 간 단차가 포착되면서 사고 위험 등 불편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8일 오후 북구 중흥동 한 이면도로 위 맨홀 주변이 파여 있는 모습.



광주 곳곳에서 도로와 맨홀 간 단차가 포착되면서 사고 위험 등 불편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18일 오후 북구 중흥동 한 이면도로 위 맨홀 주변이 파여 있는 모습. /정은정 기자

년 485건이다. 자치구별로는 북구가 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259건 ▲서구 146건 ▲광 84건 ▲남구 2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의 주된 내용은 차량 통행 불편

과 소음 등이라는 게 해당 자치구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 전 상시 정기점검을 통해 맨홀 상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용도 별로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달라 민원이 접수 되더라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맨홀 관리 주체가 상수도(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하수도(자치구)·통신 및 전원(한국전력공사) 등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담당 맨홀 관련 민원이면 비교적 빠른 조치가 가능하나, 아닐 경우 기관 이첩 등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더욱이 예산 및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관계자 또한 “자치구에 들어오던, 시에 접수되던 민원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은정 기자

“승진 청탁 관행” 전남청 인사비위 항소심서 ‘민낯’

뇌물수수·교부자 한목소리...선처 호소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 ‘관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는 전직 경찰 이모(66)씨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 등을 통해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들에 대한 사건으로, 경감 승진을 위해선 1천500만원을, 경정의 경우 3천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3명은 제삼자뇌물 취득, 나머지는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형량은 이씨의 경우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이었다.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

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중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브로커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천만원, 경정 3천만원을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퍼져있었다”며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돈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지 수수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도 금품 제공이 없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인사 시스템을 언급하며 관행이 있음을 강조함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승진했을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

안감은 수사 무마 및 인사 청탁 등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 안산에서 승진 채발 견됐다. /안재영 기자

광주 초·중·고 4곳 중 1곳 석면 노출 환경단체 “철저한 관리대책 필요”

광주지역 초·중·고교 4곳 중 1곳은 석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환경보건 시민센터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한 전국 학교 석면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전체 317개 학교 중 80개(25.2%) 학교에 석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23곳, 고등학교 17곳이다.

광주의 석면 학교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지역 중 대전(45%), 서울(30.8%)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청소년기에 석면에 노출돼 석면암이 발병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순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등 가족 법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피고(건강공단)는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동성 동반자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격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수사 편의·합의 종용’ 전직 경찰 항소 기각

법원, 징역 1년4개월 등 1심 유지 판결

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 등을 선고받은 A(50)씨

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나주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근무 중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중재해주는 대가로 총 6명으로부터 8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

은거다”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금품 수수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받은 것”이라거나 “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직위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